

고양이 복제 성공



순천대학교 공일근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연구팀은 국내 최초(세계 2번째)로 애완고양이 피부세포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고양이 6마리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8마리의 대리모에 복제수정란을 이식하여 4마리의 대리모로부터 6마리의 복제고양이를 생산하였으며, 피부세포를 제공한 애완고양이 뽀삐(연구원 윤희준 박사 소유)는 한살배기 터키쉬 앙골라로 외관상 복제산자와 완전한 일치성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발표되는 고양이복제의 성공은 한국에서 고양이과 멸종위기종인 한국산 호랑이, 보호종인 샴 등을 체세포복제기술로 대량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려준다.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복제사업이 성업중이다. 한 복제회사에서는 고양이 1마리 복제비용으로 5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으며, 복제를 원하는 많은 애완동물소유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 교수는 대학내 실험실벤처기업인 Pet Clone(주)에서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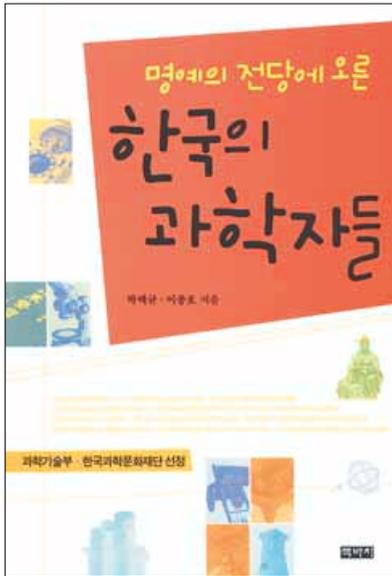
제2회 올해의 과학교사상 모집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및 창의력 신장, 과학탐구활동, 과학문화 확산 등에 크게 공헌한 과학교사들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포상분야는 과학교육분야와 과학문화분야이며, 포상내용은 과학기술부 장관 상장과 부상으로 연구장려금 1천만 원이다. 수상인원은 40명이며, 접수기간은 9월30일까지다.

(문의:한국과학재단 기술진흥실 042-869-6026).

**『명예의 전당에 오른 한국의 과학자들』 발간
- 우리 나라 과학자들을 상세히 소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과학자 10명을 꼽으라고 말하면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한국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왕이나 장군, 정치가나 예술가들은 몇몇 떠올리기는 하겠지만 과학자들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2003년 1월에

발표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오른 분들을 이야기해도 대부분 잘 모르는 분야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공계의 위기',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 등이 오늘의 한국 과학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이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현대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는 더욱 더 불모지였다.

과학은 늘 미래를 향해 전진해 왔다. 우리의 과학기술 선현들 또한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요구에 충실하면서 한발 앞서 미래를 열어 갔던 선구자이자 개척자였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우리 과학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요즘,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빛나는 과학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것이 이 책의 발간의 도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한국의 과학자들』에서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초대 헌정자 14명 중에서 현재 생존해 있는 안동혁 박사와 이호왕 박사를 제외한 12명의 특별했던 일생과 업적을 소개했다. 특히 각 인물마다 관련 업적에 대한 세계사나 한국사 연표를 만들어 놓았다. 이 연표들을 통해 그 인물이 이룬 업적이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앞섰는지, 혹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아 볼 수 있다. 박택규·이종호 저, 책바치 발간, 312쪽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9,500원이다. ☎

정리_이재성 기자 jsl@kofst.or.kr